

●● 농축산소식

미산 치즈·버터 무관세면 국산 매출 7.2%~4.8% 감소

한미FTA 체결로 치즈와 버터의 현행 관세가 전면 철폐될 경우 국내 치즈 및 버터 가격은 8~9%가 하락하고 매출은 각각 7.2~4.8%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 박사팀은 '한미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란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FTA체결 이후 미국산 치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치즈와 버터의 현행 관세 36%와 89%가 즉시 철폐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가격은 26.5%가 하락하고 국내 수요는 1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들의 관세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량의 8.3%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타 수입치즈의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산 치즈가격은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 7.9%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출감소액은 22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도 매출액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는 미국산 수입가격이 무려 47.1%가 하락하고 국내 수요는 36.8%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역시 기타 국가의 수입량이 14.0%가 감소해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국내산 버터 가격은 8.9%가 하락하고 매출 감소액은 1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유가공품 시장과 관련해 "국내 유가공품 시장은 1980년도 약 3천800억원에서 2006년도 5조6천억원으로 약 15배가 증가했다"며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생활 형성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공품 시장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산 유가공품 중에서는 전체 수입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이스크림과 치즈가 각각 20.2%, 17.0%로 높은 편"이라며 "치즈의 경우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밀려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FTA체결을 계기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는 관세 장벽이 즉시 철폐됐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충격은 수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적인 반응되지 않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과다하거나 과소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되나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 쇠고기도 곧 국내 재상륙할 전망이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이후 5년 반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2차 기술협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1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때처럼 '30개월 미만 연령'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

(IE)에서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점을 근거로 형평성 차원에서 연령과 부위에 제한없이 수입하라는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검역당국은 수입 중단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4건의 광우병 감염사례가 보고된 만큼 '광우병 발생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30개월 연령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약품 '환율 폭탄'에 망연자실

환율폭등에 동물약품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환율이 오른 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단가를 맞추지 못해 중간에 공급이 끊기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다.

환율폭등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망연자실하고 있기도 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빛간 환율예측으로 인해 가격결정, 수입량 등에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이지만, 워낙 환율이 올라있고 변동폭도 심해 환율에 민감한 업계 특성상 지금으로서는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동물약품 업계는 수입량을 줄이거나 아예 수입을 중단해 일시방편이나마 위기탈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일 폭등하는 환율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쪽에서는 하루에도 100원씩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율보도판을 보며, 결제시간을 저울질하는 수입담당자의 표정이 잔뜩 얼어붙었다.

28일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 원유로 환 환율은 1820원선. 동물약품 업계가 올초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950원과 1200원선보다

무려 50% 가량 올라있다.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가리지 않고 원재료나 완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환율상승세가 진정되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고회율에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입했지만, 시장반응이 워낙 냉담해 환율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업체에서 판매가격을 올렸지만, 환율상승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특히 사료회사나 관납 등과 연간계약을 한 업체의 경우 그야말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밀지고 팔 때가 허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사업을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업체, 대리점, 농가, 사료회사 등이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아우르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때"라고 호소했다.

갈 곳 잃은 기립불능우...대책 마련 시급

미국산 광우병 여파로 인해 갈 곳을 잃은 기립불능우들이 낙농가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낙농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BSE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거부당하는 등으로 인해 기립불능우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낙농가들은 불가피하게 매물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주요 언론매체에 광우병 의심소를 방영하면서 TV화면에 주로 홀스타인종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낙농육우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일선 도축장에서는 기립불능우에 대

해서 도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립불능우의 출하처가 사라짐에 따라 낙농가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의 한 낙농가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5마리 가량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소들을 공판장에 출하하거나 상인들에게 넘겼지만 지금은 아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매몰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낙농가는 "상인들에게 넘길 경우 30~40만원, 공판장에 출하할 경우 100만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며 "연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한 낙농가는 "상인들이 안 가져가니 어쩔 수 없이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매몰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매몰 공간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같은 기립불능우는 전국적으로 연간 3천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대책 마련을 정책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농가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립불능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매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 이제 국회에 달렸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으로 당초 계획한 304억원보다 88억원 적은 216억원을 국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의 차상위 계층 20만5,000명 추가를 위한 예산 127억2,600만원을 삭감한 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인원을 기존 저소득층 37만4,000명에서 차상위 계층 20만5,000명을 추가한 57만9,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127억2,600만원을 증액 신청키로 했었다. 낙농단체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시행을 약속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것은 유감이란 반응이다.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소비 확대는 물론 청소년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어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유 무상급식은 일반급식을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다준다. 실제로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중·고교 우유소비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고생 우유 무상급식 도입(중학교 2005년, 고등학교 2006년) 이후 무상급식 학생은 1년새 2만1,000명 늘었으나 일반급식 학생은 13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200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우유급식률은 평균 49.8%다. 그나마 초등학교 77.8%를 빼면 중학교 23.6%, 고등학교 16.3%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 90%를 웃도는 일본·미국과 크게 차이가 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예산결산위에서 학교 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도 예산에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선 학교와 유가공업체 및 대리점들이 학교 우유급식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잘 살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제4회 아이러브밀크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 성료

어린이에게 우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와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제4회 전국 아이러브밀크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 본선대회를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여 지역 예선을 거친 25개 팀이 우유 사랑과 영어 실력을 자랑했다.

이날 본선대회에서 농식품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포천 추산초등학교 3학년 정윤정(개인부문)양과 인천 용현남초등학교·신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E-friend팀(단체부문)에 돌아갔다.

이외에도 금상 2팀에는 주최기관인 낙농진흥회 장상과 낙농자조금관리위원장상과 장학금 각 100만원 수여되었으며, 은상 3팀에는 후원사 상장과 장학금 각 70만원, 동상 8팀에는 협찬 유업체 상장과 장학금 각 50만원, 그리고 장려상 10팀에는 장학금 각 30만원이 수여되는 등 본선대회에 참가한 25개팀 학생 모두에게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나는야 여자 최홍만"이라는 내용으로 개인부문 '대상'을 받은 정윤정 어린이는 실제로 낙농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우유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다양한 몸동작과 화려한 연기로 이야기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e-friend팀은 '밀크랜드로의 여행'이라는 내용을 통해 우유의 뛰어난 영양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다운 순수한 상상력으로 승화시켜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본선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강용순 교수는 최종 심사평에서 "영어와 우유의 공통점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우유와 영어, 이 두 가지 필수요소를 하나로 묶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유에 대한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는 아이러브밀크 영어말하기 대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축제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발표력 보다는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우유에 대해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대회 목적"이라고 말하며 "대회 참가자 증가와 함께 학생들의 원고수준도 매년 눈에 띄게 높아지는 질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으므로, 추후 학생들의 발표 원고를 모아 '우유 동화책'으로 발간하여 어린이들에게 우유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등)